

## 단강과 용두동, 그 얼싸안기

한 희 철(목사, 강원 원주 단강교회)

### 단강과 용두동의 만남

처음 단강에 들어오던 날은 1987년 3월 25일이었다. 계절로 야 한창 봄이었지만 그 날은 진눈깨비가 어지럽게 날렸다. 그 날은 단강교회 창립예배를 드리던 날이기도 했다.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온 곳이 단강이었다.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었구나, 단강의 첫 느낌은 한 마디로 '땅끝'이었다.

1년 여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앞담배를 넣어 말리던 두어 평 흙벽돌로 지은 사랑방이 예배처였고, 사택 또한 마찬가지였다. 십자가도 따로 세우지 않고 그 작은 방에서 예배를 드렸다. 피곤한 중에도 모여 커피를 쏟으며 예배를 드렸고, 품앗이로 일하다 새참 시간에 달려와 마당에 잠시 서서 설교를 들은 이내 일터로 달려가는 교우들도 있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단강교회 주일 아침예배는 새참시간에 해당하는 아침 10시에 드린다.

선배 목사님들께 들은 이야기가 있었고, 단강교회도 예외는 아니겠다고 생각을 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흙벽돌을 찍어 예배당을 지었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 단강에서도 그게 유

일한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던 것은 교회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작은 시골마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나마 흠벽돋을 찍을 사람도 교인 중에는 없어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이 컸다.

그렇게 1년여를 지냈을 때 용두동교회를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 마침 용두동교회에서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농촌에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을 했고 그 장소를 찾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에 단강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기꺼이 단강에 기념예배당을 짓기로 했다. 마음 뿐, 나머지가 전무한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선한 배려였으리라.

## 계속되는 만남

예배당 건축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용두동교회와의 만남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용두동교회에서 스프링 쿨러를 마을별로 한 대씩 단강에 보내주기도 했고, 어느 해인가는 용두동교회 교우들과 단강교회 교우들이 함께 콩을 심기도 했다.

단강교회 교우들이 정성껏 재래식으로 만든 메주는 해마다 용두동교회가 전량수매를 한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생각하며 나누는 뜻깊은 만남이 아닐 수 없다. 직거래는 메주뿐만이 아니라 단강에서 농사지은 콩 등 곡식들을 용두동교회 여선교회에서 수매를 한다. 판로가 어려운 교우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되고 서울에 있는 교우들에겐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생긴 약간의 이익금을 마을 노인 분들의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는 일에 쓰기도 했다. 그렇게 오가는 만남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용두동교회 선생님들과 단강 어린이들과의 만남이다.

## 옹달샘처럼 개울처럼

용두동교회 선생님들이 단강을 찾게 된 것은 여름성경학교 봉사를 위해서였다. 여름성경학교를 이끌만한 교사가 없는 단강교회에 용두동교회 선생님들이 기꺼이 찾아왔다. 누군가 내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는 경험을 어찌면 아이들은 처음으로 경험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행사 이상이었다.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첫 번째 성경학교, 선생님들은 그 해 겨울 다시 단강을 찾았다.

성탄 준비를 하던 중에 “우리 마을엔 산타가 없어요.” 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용두동교회 선생님들이 산타가 되어 단강을 찾은 것이다. 꿈을 꾸는 듯 정말로 나타난 산타를 대하던 아이들 모습이 지금도 생각한다.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들! 어떤 아이는 산타가 무서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산타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기도 했다.

옹달샘처럼 시작된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시간이 지나며 개울물처럼 흐르고 있다. 언젠가는 강물이 될 것이라고 쉽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해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 이제는 단강을 찾는 선생님 숫자나 모이는 아이들 숫자나 비슷비슷해졌다. 빙 둘러 손을 잡아 만드는 원이 해마다 작아지고 있다. 언젠가는 점 하나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날이 오더라도,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변함 없는 사랑을 나누자고 그렇게 마음의 약속을 나누곤 한다. 강을 꿈꾸지 않는 개울, 개울을 꿈꾸지 않는 옹달샘, 그런 것의 의미를 더욱 소중하게 지켜 가는 것이다. 크고 거창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마음들이 마치 숲속 옹달샘처럼 솟아 맑은 개울물로 흘러가고 있다.

10여 년 동안 단강을 변함 없이 산타로 찾아오고 있는, 처음 시작했을 때만해도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용두동교회 오종성 집사의 고백을 들어보자.

“함박눈에 비추어진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붉은 코를 반짝이면서 긴 썰매를 끌고 있는 사슴과 그 썰매 위에서 세상을 향해 작은 선물을 전해주는 산타의 모습은 1년에 한번 가졌던 어릴적 작은 소망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놓여져 있든지, 아니면 꿈을 담아 걸어놓은 양말에 넣어지든지 하는 것들은 정말 산타가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마음 한 켠에 귀하게 자리잡은 작은 그야말로 작은 소망이었다. 훗날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업적인 상상이란 것을 알았어도 1년에 한번 빨간 옷의 흰 수염을 가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었다.

학창시절의 연말은 무척이나 분주하고 부산했다. 한해를 마무리하려는 마음과 세상의 소모적인 상술이 어우러져 지금이 아니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리의 흥청거림에 마음을 추스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다. 다행히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인들은 좀더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한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산타는 무척 재미있었다. 미리 부모들이 준비한 선물과 어린이들의 장단점을 적은 쪽지를 들고서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면 선물을 빙자하여 어린이들의 장단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어울려 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각 유치원을 돌면서 어린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도시 아이들의 광대와 같은 소모적인 산타였다. 그것은 그냥 아르바이트였다.

단강의 어린이들을 처음 만난 것은 89년 여름이었다. 용두동 교회의 청년부에 소속되어 단강교회에서의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였다. 도시 문화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단강의 어린이들은 참으로 순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전에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아름다움. 이른 아침에 교회 앞마당으로 와서 성경 학교를 기다렸고 끝나도 집에 가지 않고 선생님들을 부르면서 쫓아 다녔다.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의 기쁨이 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여름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단강의 어린이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한 집사님의 말씀을 뒤로하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해 겨울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서 단강의 어린이들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이 밀려들었다. 우리들은 각자 돌보았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였고 산타클로스라는 인물을 내세워 어린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모적인 도시의 산타와 단강 어린이들의 상상 속에 있던 산타는 너무도 달라 우리들은 많은 놀라움을 안고서 돌아왔다. 정작 단강 어린이들에게는 상상이 아닌 작은 소망을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찌면 아주 오래 전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산타가 춥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작은 소망의 불씨가 단강 어린이들의 마음에 피어나는 것 같았다.

이듬해에도 우리 청년들은 작은 책임감을 가지고서 단강에서의 겨울 행사를 준비했다. 어린이들의 얼굴을 더듬어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였고 우리들은 하나의 행사로서 또 한 번의 산타를 준비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단강에 절반도 채 가기 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내린 눈 덕분에 단강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쉽게 내린 우리의 결정에 -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 단강의 어린이들에게는 많은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오는 산타클로스라는 우스운 얘깃거리로 그 때 일이 남아있다.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더 솔직하자면 우리 청년들과 만났던 어린이들, 아니 이제는 청년이 되었을 그들의 이름 석자조차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매년 반복되던 성탄절의 단강교회 산타는 가끔 후배들이 이어서 하기도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름, 겨울 성경 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전보다도 더 어린

이들과 가까운 듯 하다. 후배들에게 감사한다.

마을 어른들이 만들어 주시는 만두국을, 때가 되면 단강을 아는 많은 지인(知人)들과 나누는 것도 이제는 연례행사(?)가 되었다. 나의 어린 두 자녀도 단강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의 추억이 있다. 이러한 연례적인 일들이 지금도 자라고 있는 단강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자라면서 만날 더 큰 세상에서 펼칠 수 있는 커다란 날개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소망으로 오셨던 것과 같이 단강에서의 산타클로스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작은 소망이요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얼싸안기

우리말에 얼싸안기라는 말이 있다. 대개는 얼싸안기라는 말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의 몸을 뜨겁게 끌어안는 것쯤으로 알고 있지만 얼싸안기라는 말은 좀 더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얼’을 ‘감싸안는 것’이 얼싸안기다.

닭을 키워보면 안다. 알을 품는 암탉은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알을 품는다. 알에서 병아리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는 자기의 목숨을 건 얼싸안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얼싸안기가 있어야 생명의 변화는 일어난다.

단강을 사랑과 그리움으로 찾아와 어린이들을 만나는 용두동 교회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얼싸안기라는 말이 떠오른다. 좁은 나라 안에서 너무나 다른 환경이 되어버린 오늘의 농촌과 도시. 그 지역의 벽과 나이의 벽을 사랑으로 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또 하나의 얼싸안기, 알에서 병아리로 깨어나는 변화는 주께서 필요한 시기에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만남이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이 귀한 얼싸안기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알에서 병아리로 변화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